

새로 나온 책

▶ 허즈번즈(박소해 지음)=제주 4·3을 다룬 '해녀의 아들'로 한국추리문학상 황금펜상을 받은 작가의 장편소설이다.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이라는 격동의 시대를 배경으로, 제주소년 수항이 역사의 상흔을 딛고 주체적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다. 책속 배경인 적산가옥과 그의 성장 서사가 어우러져 관능적이고 기이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TXTY(텍스티), 1만9800원.

▶ 그거, 다 과긴장이에요(오쿠다 히로미 지음·한주희 옮김)=번다한 업무와 복잡한 인간관계, 디지털 과부하 속에서 늘 긴장한 채 살아가는 이들을 위한 심신 회복서다. 저자는 사람들이 과긴장 증상을 자각하지 못한 채 지나치지 않도록, 과긴장에 대한 지식과 케어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끊임없는 긴장 문화 속에서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는 법을 차분히 제시한다. 어썸그레이, 1만8000원.

▶ 우리가 기다린 건 바로 우리다(박권일 지음)='88만원 세대'라는 개념으로 청년 세대의 불안정한 삶을 사회 의제로 끌어올린 저자가 이번에는 한국 사회의 능력주의와 공정, 차별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다. 지난 10년 가까이 한겨레에 연재한 칼럼 등 약 70편의 글을 엮었으며, 정치·사회 전반에 투영된 담론을 통해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냉정하게 짚는다. 사계절, 1만8500원.

▶ 안녕, 피아노 차차(이필원 지음·미란 그림)=분리수 거장에 버려진 피아노 '차차'와 피아노를 바라보는 마음이 서로 다른 아이들 예림·은수·준호·주영의 이야기를 담았다. 아이들의 시선을 통해 다양한 마음이 모여 서로의 삶을 따뜻하게 비추는 순간을 그려낸다. 낡고 고장났다고 끝이 아니라 작은 관심과 손길로 잊힌 것들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한다. 위즈덤하우스, 1만4000원.

▶ 파 뽀는 날(홍당무 지음)=태양이 내리쬐는 한여름, 가족과 함께 파를 뽑으며 보낸 어린이의 치열한 노동의 하루를 낭만적으로 풀어냈다. 파를 뽑는 손길, 지렁이와 무당벌레 등 자연 속 '농부들'을 만나는 순간까지 아이 특유의 순수한 설렘이 강렬한 색감으로 펼쳐진다. 세상 모든 것이 새롭고 궁금한 아이의 눈으로 바라본 하루가 끝까지 유쾌하게 이어진다. 눈장, 1만8000원. 김채현기자 hachk@ihalla.com

# 탄자니아로 간 시인... 허망함에서 찾은 자유

## 노 시인들이 전하는 이야기 나태주·김승희·이상국 시집

지나온 시간을 돌아본다. 삶의 비애와 슬픔, 허망함 속에서도 쉽게 절망하거나 희망을 잃지 않으려 했다. 노(老) 시인들이 전하는 시편들이 묵직하게 다가오는 이유다.

▶ 돌아보니 그곳이 천국이었네  
“흰구름 되어서 / 바람이 되어서 // 우뚝우뚝 나무가 되어서 / 시든 풀숲이 되어서 // 오로지 넘치는 나를 좀 버리고 / 내가 되어서// 그렇게 일곱 날 / 지구 반대편 탄자니아의 날들 // (중략) 꿈같은 인생길에서 다시 / 꿈을 꾸 것 같은 날들이 며칠.”(시 ‘다시는 그날로 돌아가지 못하리’ 중)

‘꽃꽃 시인’으로 불리는 나태주 시인이 여행 시집 ‘돌아보니 그곳이 천국이었네’를 펴냈다. 여든의 시인은 6년간 후원해온 어린 소녀를 만나기 위해 꼬박 21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 탄자니아에 도착했다. “눈이 크고 맑고 얼굴이 둥근” 여덟살 아이는 어느새 “건강하고 씩씩한” 열다섯 소녀가 됐고, 시인에게 이번 여행은 또 하나의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 붉은 먼지와 바람과 햇빛이 가득한 탄자니아에서 일곱날을 보내고 돌아와 다시 돌아와 본 삶의 장면들을 시 134편으로 엮었다. 또 시와 함께 시인이 직접 그린 연필화 62점도 함께 담았다. 그림에는 탄자니아의 동물들, 산과 나무, 건



기를 건디는 바오밥나무 등 애정 어린 시선으로 그린 풍경들이 곳곳에 자리한다. 달, 1만8000원.

▶ 뽕점 같은 힘찬 자유  
“나는 그때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빋고 / 초라한 꼴로 동네를 누비다가 횡단보도 한가운데서 만난 것인데 / 그때 불현듯 나는 내가 자유롭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 그런 뽕점 같은 힘찬 자유가 나는 좋다”(시 ‘자유라는 말에 대하여’ 중)  
김승희 시인이 열두 번째 시집 ‘뽕점 같은 힘찬 자유’를 냈다. 2021년 만해문학상, 고산문학대상, 청마문학상 등을 수상한 ‘단무지와 베이컨의 진실한 사랑’ 이후 5년 만에 펴낸 시집이다. 50여 년간 시를 써 온 그는 이번 시집에서 허망함에서 찾은 자유의 의미를 직관적이면서 역동성있는 다채로운 시어로 노래한다. 일상에 대한 통찰을 통해

허망으로 가득 찬 세계에서 역설적으로 우뚝 솟아나는 자유를 향한 의지를 담은 69편의 시를 총 4부로 나눠 실었다. 시인은 허망을 말할 때조차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시인은 ‘가난에 대하여’라는 시에서 “가난이 마지막 단어가 아니라서 다행”이라 말하며 “취발되지 않는” 슬픔 속에서도 “어진 기운이 나오는 파릇한 움틀임”을 포착해내는 생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의지는 ‘그래도 푸른 하늘이 많다’라는 시를 통해 “희망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밤”에도 “돌이 기억하는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되뇌인다. 창비, 1만3000원.  
▶ 나는 용서도 없이 살았다  
“시가 늘지 않는다 //(중략) 살다보면 사랑도 늘고 술도 늘고 // 이별도 늘어가는데 // 나의 시는 늘지 않는다 // 인생이 늘지 않는다”(시 ‘나의 시’ 중)  
한국 서정시의 맥을 이으며 시의 지평

을 넓혀온 이상국 시인이 열 번째 시집 ‘나는 용서도 없이 살았다’를 펴냈다. 등단 50년을 앞둔 시인은 이번 시집에서 지나온 삶을 조용히 되돌아보며 인생을 성찰한다. 총 4부로 구성된 시집에는 삶에 대한 연민과 경험을 담백하고 진솔한 언어로 담아낸 61편의 시가 담겼다. 시인은 ‘핑계’라는 시에서 “사람이 살려고 / 너무 애쓰는 일을 재앙”이라고 여기며 “가난하면 세상에 미안한 일이 적다”고 말한다. 또 ‘저녁의 위로’라는 시에서 “죽을힘을 다해 세상에 나와 / 어떤 사람은 평생 고기를 잡고 / 어떤 사람은 벼들만 썰다 간다”며 “저녁이다 슬픔들아 / 어둠의 등에 업혀 집으로 가자”고 한다. 삶의 비애와 슬픔을 품어온 그는 이 같은 서정의 힘으로 슬픔을 품은 이들에게 조용한 위로를 전한다. 창비, 1만3000원.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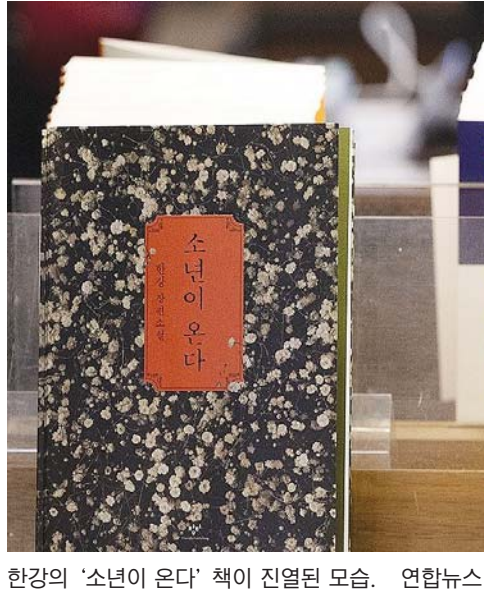
## 작년 가장 많이 읽은 책은... ‘소년이 온다’

### 전국 공공도서관 대출동향 분석 비문학 ‘마흔에 읽은 쇼펜하우어’

지난해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빌려본 책은 소설가 한강의 ‘소년이 온다’였다. 5일 국립중앙도서관이 전국 공공도서관 1583곳의 2025년 도서 대출 동향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소년이 온다’의 연간 대출 건수는 총 6만504건으로, 문

학 부문 대출 1위를 기록했다. 한강의 ‘채식주의자’ (5만8272건·2위)와 ‘작별하지 않는다’ (4만6387건·3위)도 대출 상위권에 포함됐다. 도서관 관계자는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2025년 대출 상위 1000권 내에 한강 작가의 작품이 17권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어 공공도서관 문학 부문 대출에서는 김호연의 ‘불편한 편의점1’, 송원평의 ‘아몬드’, 양귀자의 ‘모순’, 정혜연

의 ‘흥학의 자리’, 김애란의 ‘이중 하나’는 거짓말, 김호연의 ‘불편한 편의점2’ 등 순이었다. 비문학 부문 1위는 강용수의 ‘마흔에 읽은 쇼펜하우어’ (2만1839건)이었다. 비문학 분야에서는 경제·금융, 가정·건강, 심리 등을 주제로 한 책 대출 이용이 많았다. 지난해 한 해 공공도서관의 전체 대출 건수는 1억3854만5845건으로, 2024년 대비 3.6% 증가했다. 월별로는 8월에 대출이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40대, 초·중·고·대학생(8~13세), 30대 순으로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박소정기자



한강의 ‘소년이 온다’ 책이 진열된 모습. 연합뉴스

2026년 새해 첫 할인!

# 노비타 비데 최대 특가!

새해 시작은 노비타와 함께 하세요! +

## 2025. 12. 29. ~ 2026. 2. 28.

무료 설치 | 무료 수거 | 비데 필터 증정 (2개)

자세히 보기

기간 한정 이벤트

# 전국 대리점 단독 노비타 비데 보상판매

## 2025. 12. 29. ~ 2026. 2. 28.

노비타 비데 특별할인가제용 사용 비데 반납시

무료수거, 무료 설치

비데 필터 증정 (2개)

### 살균비데 리모컨형

BD-H700HO

6만원 할인

359,000원

#리모컨 #매일자동살균 #세가지수류 #다이나믹무브 #회전노즐 #강력방수(IPX5)

### 살균비데 일반형

BD-H500EO

5만원 할인

285,000원

#매일자동살균 #미스트세정 #강력방수(IPX5)

### 라인핏비데

BD-AF50N

3년 무상 A/S 7만원 할인

229,000원

#슬림디자인 #공기방출세정 #강력방수(IPX5/조작부는 IPX7)

### 더블 살균비데

BD-DHS8-010RA

3년 무상 AS 5만원 할인

429,000원

#3년무상AS #리모컨 #UV노출살균 #하루두번전체살균 #순간직수가열 #강력방수(IPX5/조작부는 IPX7)

### 슬림비데 컴팩트 리모컨형

BD-GCS4-03ERA

3년 무상 AS 4만원 할인

249,000원

#리모컨 #3년무상AS #슬림디자인 #미스트세정 #강력방수(IPX5)

### 슬림비데 컴팩트 일반형

BD-DCS4-03SB

2만 5천원 할인

219,000원

#슬림디자인 #미스트세정 #강력방수(IPX5)

구입문의 | 제주위닉스 총판 및 A/S센터 · 제주노비타 총판 및 A/S센터 064)758-0990~1 제주시 연삼로17(연동)

신평로터리 ● 빙스 ● 옥광병원 ● 신재주로터리 ● 마린나호텔

상성 서비스센터 WIND novita ● 공항